

보도시점 (온라인) 2025. 1. 22.(수) 12:00
(지면) 2025. 1. 23.(목) 조간

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재난안전관리체계 본격 가동

- ‘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’을 통해 57종 재난 유형의 재난안전데이터 1천 8백여 개 개방

<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 활용(안) 예시>

- 사전협의를 없는 굴착공사로 인해 통신케이블 단선사고가 발생하고 있다. 이에, ‘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’에서 제공하는 굴착기 실시간 위치정보를 활용하면, 광케이블 매설위치와 비교해 운전자에게 근접 정보를 알려주어 통신케이블 단선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.



- 최근 잦아지는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. 향후 ‘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’에서 조기경보시스템과 출입차단시스템 IoT 센싱정보를 제공하면, 내비게이션사에서 해당 지점 진입 시 위험정보를 운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.



- 앞으로 재난안전과 관련된 데이터를 한곳에 모아 활용·분석함으로써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.
- 행정안전부는 2022년부터 3년간 추진해 온 ‘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’ 구축을 완료하고, 1월 23일(목)부터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.
 - 그간 기관마다 재난안전데이터를 따로 제공해 데이터 수집에 불편이 있었지만, 이제는 ‘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(www.safetydata.go.kr)’을 통해 필요한 데이터를 한곳에서 받을 수 있다.
 - 특히, 행정·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긴급한 재난 상황에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찾기 어려웠던 민간기업도 데이터를 손쉽게 받아 활용할 수 있다.
- ‘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’은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하는 57종 재난 유형*의 데이터를 제공한다.
 - * 13종 자연재난(706개 데이터), 28종 사회재난(844개 데이터), 16종 주요상황대응(257개 데이터)
 - 사용자가 원하는 데이터를 쉽고 빠르게 찾아 활용할 수 있도록 ▲분류별 통합검색 ▲메타데이터 등록·관리 ▲기업 활용지원 창구 운영 ▲맞춤형 데이터 신청·제공 기능도 함께 제공한다.
- 아울러, 행정안전부는 민간에서 재난안전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.
 - 올해 ‘굴착기 실시간 위치정보’와 ‘통신케이블 매설정보’ 간의 중계를 시작으로, 활용성이 높고 국민 안전에 직결되는 데이터를 발굴한다.
 - 창업 연계를 위한 학생·창업자 대상 해커톤과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고, 재난안전데이터 활용기업 지원*도 강화한다.
 - * 1:1 컨설팅, 교육·전문가 특강, 해외기업 매칭 상담, 안전산업박람회 참여기회 제공 등
-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“재난안전데이터 공유플랫폼이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재난관리체계를 뒷받침해 국민 안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겠다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안전예방정책실 재난안전데이터과	책임자	과 장	이일령 (044-205-4460)
		담당자	사무관	박은주 (044-205-4462)

□ 주요 내용

① 재난유형별 데이터 수집·연계·공유 체계 구축

- (데이터)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생산·관리하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각종 정형·비정형데이터를 재난유형별(57종)로 통합하여 DB 구축
- (시스템) 기관 간 필요한 재난안전데이터를 상호 간에 공유하고,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데이터를 개방할 수 있는 플랫폼 개발

② 공공, 민간의 서비스 개발을 위한 데이터 공유·개방

- 정부 ↔ 기업(G2B) : 전기·가스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라이프라인 기업의 인프라 보호 및 재난대응 지원을 위해 관련 기업에 필요한 데이터 실시간 상호 공유(민·관 유기적 협력모델)

※ 공공 : 피해발생 또는 확산지역 예측 및 주민 대피 시 민관 합동대응에 활용

기업 : 재난취약시설 피해 방지를 위한 의사결정 및 대피에 활용

- 정부 ↔ 정부(G2G) : 급경사지, 산불, 지진 및 IoT 센싱정보(수위, 출입차단) 등 재난발생 정보를 중계하여 재난 피해를 사전 예측 → 기관 별 대응 및 초기 의사결정 지원

※ 공공 : 위험감지 시 관계기관 상황전파, 상황판단, 지원규모 결정 등 정책 지원

□ 기대효과

	《 지금까지 (As-Is) 》	➔	《 앞으로는(To-Be) 》
공 통	• 각 Site 방문, 多경로로 정보 취득		• 「공유 플랫폼」에서 모든 정보 취득
공무원	• 실시간 정보 기반 재난관리 • 공무원 경험에 기반한 재난관리		• 가까운 미래예측 기반 재난관리 • 데이터(증거) 기반 재난안전관리
국 민	• 단순한 정보제공 사항 확인 • 필요한 재난안전정보 각각 확인		• 국민, 기업 맞춤형 정보 확인 • 원하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확인